

한국수력원자력(주)

항공기 충돌시에도 원전 안전성 유지

최근 美 에너지부(DOE)의 후원 하에 미국 전력연구소(EPRI)가 수개월 간에 걸쳐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격납건물은 대형 항공기가 충돌하는 경우에도 방사능을 누출하지 않고 그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컴퓨터 모델링 기술이 사용된 이번 분석에서 원전의 격납건물, 사용후연료 저장조, 연료저장용기, 사용후연료 수송용기는 항공기 충돌시 일부 콘크리트 손상과 철골이 휘어지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들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관련 미국 원자력에너지연구소(NEI) Joe F. Colvin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원전이 대형 항공기 충돌도 견디어낼 만큼 견고하다는 원자력 산업계의 확신을 증명해준 것이다" 라면서 "항공기 충돌시 엄청난 충격에 의해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생산 기능이 크게 손상을 받게 되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일반대중의 건강과 안전은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논평하였다.

이번 분석은 대형 항공기가 2001년 9월 11일 美 국방부에 충돌한 항공기와 유사한 속도로 저공비행 중 구조물에 완전 충돌하여 그 충돌에너지를 구

조물에 전부 전달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구조물 분야에서 수십년간 종사한 경험 있는 국제전문가에 의해 검증 받았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주)

건설장비 매출 30%대 급성장

지난 해 1만여대, 5000억 원어치 판매, 중국 현지법인 목표대비 1.5배 팔아

現代重工業(대표: 崔吉善)은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 국내의 시장에서 1만 200대, 5030억 원어치의 건설장비를 팔아 전년 대비 29%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現代重工業은 지난 해 국내시장에서 39%의 매출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현지에 생산법인(常州-現代工程機械有限公司, Changzhou-Hyundai Construction Machinery Co., Ltd.)이 진출해 있는 중국에서는 전년 대비 55%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도 22.3%를 차지, 히다찌, 고마쓰, 캐터필라 등 세계적 선발업체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중국의 경우, 지난 해 은행대출판매제를 도입해 구매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준 것과 판매대리상에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 주효했으며, 장비전시회와 설명회, 고객좌담회를 통한 고객밀착 영업을 시도한 것도

매출신장에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상주법인이 지난해 중국 정부(과학기술청)로부터 건설장비업계 최초로 「기술 및 지식밀집 기업」에 선정되어 국가세무총국으로부터 기업소득세를 30%에서 15%로 감면받게 된 것도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부동산 건설경기가 살아난데다 비수기의 판매캠페인 강화, 우수고객을 통한 모니터링제의 확대 실시 등의 이유가 매출 증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힘입어 지난 해 매출 목표로 설정한 4800억 원을 4.8%나 초과 달성했다.

올해 매출을 지난 해에 비해 20% 늘어난 6000억 원으로 올려잡고 이의 달성을 위해 공격적 마케팅을 시도할 계획이다.

국내에 건설투자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고 장비 활용시스템과 금융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등 시장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신장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7.8% 내외의 경제성장률에다 건설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중국시장에서는 생산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순회기동정비팀을 강화하는 차별화된 A/S전략으로 승부를 건다.

이밖에 유럽지역은 딜러망을 정비하는 한편, 전시회와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고, 미주지역은 브랜드 이미지 부각과 전략모델의 집중판매 전략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03년도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설명회 개최

한 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김준철)는 올해 11월 4일부터 11월 7일(4일간)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03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의 설명회를 전시 참가 실무 임·직원을 대상으로 2003년 1월 22일(11:00~14:00) 홀리데이인서울호텔 2층 무궁화룸(구 가든호텔, 마포 소재)에서 개최했다.

동 전시 설명회의 목적은 SIEF 2002 성과보고, SIEF 2003의 효율적 운영 추진방향 제시, SIEF 2003년 추진계획 설명과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내 유일의 증전기기 전시회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진흥회는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의 위상정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하여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금번 설명회는 물론 지속적인 전시담당 임·직원들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새로운 전시문화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PennWell사와 2004년

전시회 공동개최 등으로 SIEF가 실질적인 국제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지난 1월 15일 김준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효율적인 증전기기 PL사고의 해결 및 원활한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PL상담센터 「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 위촉 및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 2002년도 PL상담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03년도 사업추진계획 등을 의결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PL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한 "증전기기 PL센터 규정"도 마련하였다.

한국전기연구원

'디지털 X레이 영상진단기' 개발

한 국전기연구원 영상의료기기팀 허영 박사팀은 최근 리스튬을 비롯한 삼성전자·현대의료기기·파웰 등 관련업체와 공동으로 고성능·고해상도의 '평판형 디지털 X레이 영상진단기'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자원부의 중기거점사업으로 지난 4년 동안 총 2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비정질실리콘(A-si) 방식을 채택해 완성한 이 제품은 2560×3072의 높은 해상도와 영상을 신속 정확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고속영상 전처리 보드 및 다양한 영상처리기능의 탑재로 가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의료영상 국제표준 규격인 DICOM 3.0을 지원함으로써 병원 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이 용이하고 필름대신 평판형 반도체 X레이 검출기를 사용했으며, 사후관리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고 편의성을 제고한 것이 장점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전기연구원측은 이번 제품 개발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은 물론, 연간 320억여 원의 수입대체 및 1000억원의 수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연구원과 리스튬은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 시제품을 설치해 성능시험 및 통합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화질시험과 성능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중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한국전기연구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 전기시험연구소에서 '디지털 X레이 영상진단기' 개발 발표회를 가졌다.

LG산전(주)

2002년 매출 8503억원

2001년 대비 매출액 5.5% 증가한 8503억원

LG 산전(대표 鄭炳哲)은 2002년도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2001년도 대비 5.5% 증가한 850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001년도 대비 47.1% 증가한 1099억원, 경상이익은 2001년도 대비 323억원이 증가한(6,460% 증가) 328억원,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하여 4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LG산전 재정담당 한재훈 상무는 “그 동안 부담이 되던 영업권 상각이 올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큰 폭의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LG산전은 올해 매출액은 지난 해 대비 6.7% 증가한 9072억원, 영업이익은 지난 해 대비 8.6% 증가한 1193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주)

스리랑카 공무원 연수단, 태안화력본부 방문

스리랑카 공무원 연수단 15명이 지난 1월 9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를 방문하였다.

조우장 태안화력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발전회사인 한국서



부발전이 스리랑카와 전력사업 분야에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바라며,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의 발전사업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갖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연수단 대표인 Mr. W.D. Jayasingh(Public Finance PEMS Addl. Director General Project Director)는 스리랑카는 현재 수력발전에서 화력발전으로 전원(電源)을 전환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태안화력 방문이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연수단은 발전소 전망대와 5, 6호기 중앙제어실을 견학한 후 발전교육원을 방문하였으며, 연수단의 이번 방문은 앞으로 해외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연료, 제1회 원자력안전마크 획득

한국전력의 그룹사인 원자력연료 주식회사(사장 김덕지)가 제1회 원자력안전마크(Korea Nuclear Safety Mark : KNSM) 수여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30일 과학기술부에서 이를 수여하였다.

원자력안전마크(KNSM)는 원자력 기업내 안전을 우선하는 경영문화의 정착과 원자력 안전에 기여한 기관 등

의 사기진작을 위해 작년 12월 제정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 회사의 방사선환경실이 “원자력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한전기공(주)의 핵연료 로딩가이드 장치가 “원자력안전기술·제품분야”에서 각각 선정되었다.

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방사선환경실은 산·학·연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심사에서 천연우라늄과 저농축 육불화우라늄 등을 수입·제조하는 과정에서 종합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원자력연료 제조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 것으로 평가받아 ‘원자력안전관리우수기관’ 부문에서 KNSM을 받게 됐다.

한편, KNSM을 받은 기관은 이로 인한 홍보 효과를 거두게 됨은 물론,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이 부과되고 원자력 안전의 날 및 유공자 선정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장학생 선발 등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전력기술(주)

OECD/NEA의 IRPhE Project 자문용역 체결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12월 21일 OECD/NEA와 IRPhE(International Reactor Physics Experiments) Project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

결하였다.

각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실험을 수행하여 이를 분석해 왔다. 이런 실험 결과는 이론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과 새로운 실험을 계획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OECD/NEA의 원자력위원회(Nuclear Science Committee)는 원자력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주요 실험들을 국제적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각종 실험과 관련 자료를 새로운 규격에 맞추어 전산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1995년부터 OECD/NEA의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과제에 참여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벨기에의 VENUS-1, VENUS-3 실험로 Benchmark 계산 수행 및 검증을 수행하였고, 이들 실험자료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OECD/NEA는 상기의 원자로 실험과 분석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하였다.

OECD/NEA와 상기의 자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금까지 원자력 선진 각국에서 수행한 실험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OECD/NEA의 프로젝트에서 외국

의 원자력 선진국들과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따라 회사 기술력의 국제적 이미지 홍보에도 좋은 효과가 앞으로 기대된다.

한국남동발전(주)

직원 제안제도 활성화로 획기적 경영 개선 기대

한국남동발전(사장 尹幸淳)이 목적으로 시행중인 사내 제안심사에서 획기적인 제안들이 발굴되어 막대한 예산 절감으로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남동발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하반기 동안 접수된 총제안 237건 중 예심을 통과한 32건에 대해 지난 해 12월 24일 시행된 제4차 심사에서 치열한 경합을 거친 끝에 발전처의 지문창씨가 제안한 '회처리장 복토기준 개선'으로 인한 복토비용 절감'이 영예의 1등을 차지하며 창안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받았으며, 여수화력발전처의 김종수씨의 'DEHC 시험장비 개발 활용', 관리지원처 이영국씨의 '산업재해보상 보험조건 개선' 및 건설처 정광성씨의 '영흥화력 탈황설비 폐수처리 설비 설계 개선' 등으로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회처리장 복토기준 개선'은 석탄발전소의 회처리장 복토기준이 과도한 것임을 환경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알리고 이의 완화

를 건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케 함으로써 삼천포 및 영동화력의 약 200억원에 달하는 복토비용을 절감한 것이다. 우수상을 받은 다른 제안들은 물론 예심을 통과한 총 32건의 모든 제안들도 예산절감은 물론 작업여건의 개선과 환경보전 등에 기여하는 것들로서 경영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남동발전은 2001년도에 총 제안건수 297건에 14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데 이어 지난 2002년도에 237건의 제안으로 296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절감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직원들의 자발적인 경영참여 분위기 조성의 효과도 지대하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으로 절감된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규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두산중공업(주)

경영효율 개선 등 4대 과제 추진

두산중공업은 세계적인 중공업체 성장전략으로 올해 경영효율 개선 등 4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지난 1월 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기업 경쟁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효율을 개선하고 국내·외 수주활동에 역량을 집중, 책임

경영체제의 확립과 성과주의 문화 정착,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상생의 노사 문화를 정립키로 했다.

김상갑(金相甲) 사장은 “국가·기업간 경쟁심화로 고객의 요구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주)

서울화력발전처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행사 실시

한 국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처(처장 채희태)는 2003년 1월 10일 전 직원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서울화력발전처는 1999년 4월 21일 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관리 초일류기업 인증을 받는데 이어, 이번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수준 높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날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장은 사업주 및 직원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심하여 안전관리 활동에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인증서를 수여받은 채희태 처장은 수여식이 있기까지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신 공단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표현하였으며, 안전보건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안전보건관리 접근방식 및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 직원에게 새로운 가치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을 강조하였다.

(주)효성

올해 매출액 5조원 목표

효 성의 올해 매출 목표는 작년에 비해 8.7% 증가한 5조원, 세전이익은 50% 증가한 3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어 올해 투자계획은 3000억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20% 늘려 잡았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본전략에 따라 타이어코드, 스펀텍스 등 주력제품의 해외생산기지 구축과 국내외 공장 인수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국에 증설중인 스펀텍스 공장을 오는 6월 완공하고 역시 중국에 건설하고 있는 연산 1만 1000t 규모의 폴리에스테르 산업용 실 공장

을 오는 9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효성은 또한 재무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 2001년말 161%에서 지난 해 3. 4분기말 154%로 축소된 부채비율을 올해 말에는 130%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효성은 올해 경영슬로건을 ‘고객중심경영’으로 정하고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전분야의 품질경영 체제 구축과 투명경영을 통한 신뢰경영체제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효성은 지난해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액 4조 6000억원, 세전이익 2000억원을 올렸다.

한국남부발전(주)

가스터빈 1단 폐기동의(廢棄動翼) 재활용 기술세미나 개최

한 국남동발전 본사 발전지원처 주최로 타 발전회사 및 관련 기업의 복합화력 가스터빈 담당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터빈 1단 폐기 동익 재활용 기술세미나를 지난 1월 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제작사의 정비기준을 초과하여 폐기 보관중인 신인천복합 가스터빈 1단 동익 재활용을 위해 해외 가스터빈 정비업체인 WGHIT사(Wood Group 계열사)에 재생 가능성 위탁평가 시행결과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었다. ■

